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계열/유형	인문계열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문제지에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을 기입**합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흑색) 필기도구(볼펜, 샤프, 연필 등)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 시에는 흰색 수정테이프 또는 지우개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재작성**하거나 **교정부호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두 줄 위에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검정색(흑색) 이외의 필기구 사용 불가,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두 장 모두 표기).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답안 작성 영역 이외의 영역에 답안을 작성할 경우 작성한 내용이 채점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답안지를 구기거나 접는 행위 ·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 등으로 답안지를 훼손**한 경우, 답안지 스캔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채점 시 **불이익 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답안지에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인적사항 및 특별한 표식**을 남기는 경우에는 **불이익 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수험번호 OMR 작성 착오(미체크, 오체크 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답안지는 총 1장이며,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가)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여덟 시간 고용해 놓고 한 시간을 놀린다면, 한 시간 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 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나) 오래된 것이 새롭다. 소위 모던(근대)의 시각에선 낯선 감성이다. 100여 년 전 개항과 더불어 한반도에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모던은 새것을 뜻했다. …… 1920년 잡지 《서울》 4월 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서울’이여 ‘서울’이여, 네 부디 영국의 런던처럼 되어라. 너 ‘서울’로 말미암아 조선을 영국처럼 되게 하여라. [중략] 잘 꾸미고 잘 간수하여라. 번쩍하니 새롭게 하여라. …… ”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51쪽에서 재인용)

한 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국 런던을 모방하려 한다. 이번엔 옛것에 대한 동경이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불도저 개발주의’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 그 역사성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다. 템스강변 화력 발전소의 구조를 변경해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테이트 모던’이 모범 사례다. 한때 정수장(선유도 생태 공원)·담배 공장(청주 첨단 문화 산업 단지)·인쇄 공장(서울 금천 예술 공장)이었던 공간들이 속속 문화의 옷을 입고 거듭나고 있다. 이른바 ‘도시 재생’, ‘근대 유산의 재활용’이다. ……

빈티지[1]·레트로[2]·인더스트리얼[3] 인테리어 등 이런 공간을 수식하는 말은 많다.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폐공장·창고는 도심 건물에선 드물게 넓고 높은 공간과 층고를 자랑한다.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하는 의외성도 유행이나 변화에 민감한 이들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20~30년 길게는 100년을 넘보는 역사성이 공간에 ‘이야기’를 덧입힌다. 합정동에 있던 폐공장을 개조해 만든 커피숍의 단골인 배 모 씨는 “오래된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콘크리트 도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

결국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 “이 공간이 힘이 있는 건 내면에 깃든 역사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게들이 오래될수록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1]빈티지: 오래되어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패션이나 장식물을 이름. [2]레트로: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으로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을 말함. [3]인더스트리얼: 기능적이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스타일을 뜻함.

(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光化].’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녕전 – 교태

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수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 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 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

>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오백 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설워도 할 뿐이다. …… 풍우 오백 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 일로[4]의 사절[5]도 지나고 원청[6]의 국빈[7]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아! …… 오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느냐. (후략) ……

그리고 2006년에는 광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8]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격랑[9]의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수난을 당하며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지요.

[4]일로(日露): 일본과 러시아. [5]사절(使節):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6]원청(元淸): 원나라와 청나라. [7]국빈(國賓):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 [8]법궁(法宮): 임금이 사는 궁궐. [9]격랑(激浪):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라) 국어사전에서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의 핵심 개념은 인류·변화·기록이다. 인류의 변화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사실로 존재하지만, 역사로 기록되는 사실은 그중의 일부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의 집단 기억이나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선택된다. ……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당대사라고 부른다. …… 과거의 역사가들은 언제나 당대사를 썼다.

박은식은 일제 강점기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픈 과정을 『한국통사(韓國痛史)』에,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을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기록하였다.

>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

박은식은 역사를 주체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통사'를 쓸 때의 그는 혁신적인 유학자였지만, '혈사'를 쓸 때는 민주주의를 공부한 민족주의자였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과정도 배우게 된다.

[문제 1]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문제 2]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문(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